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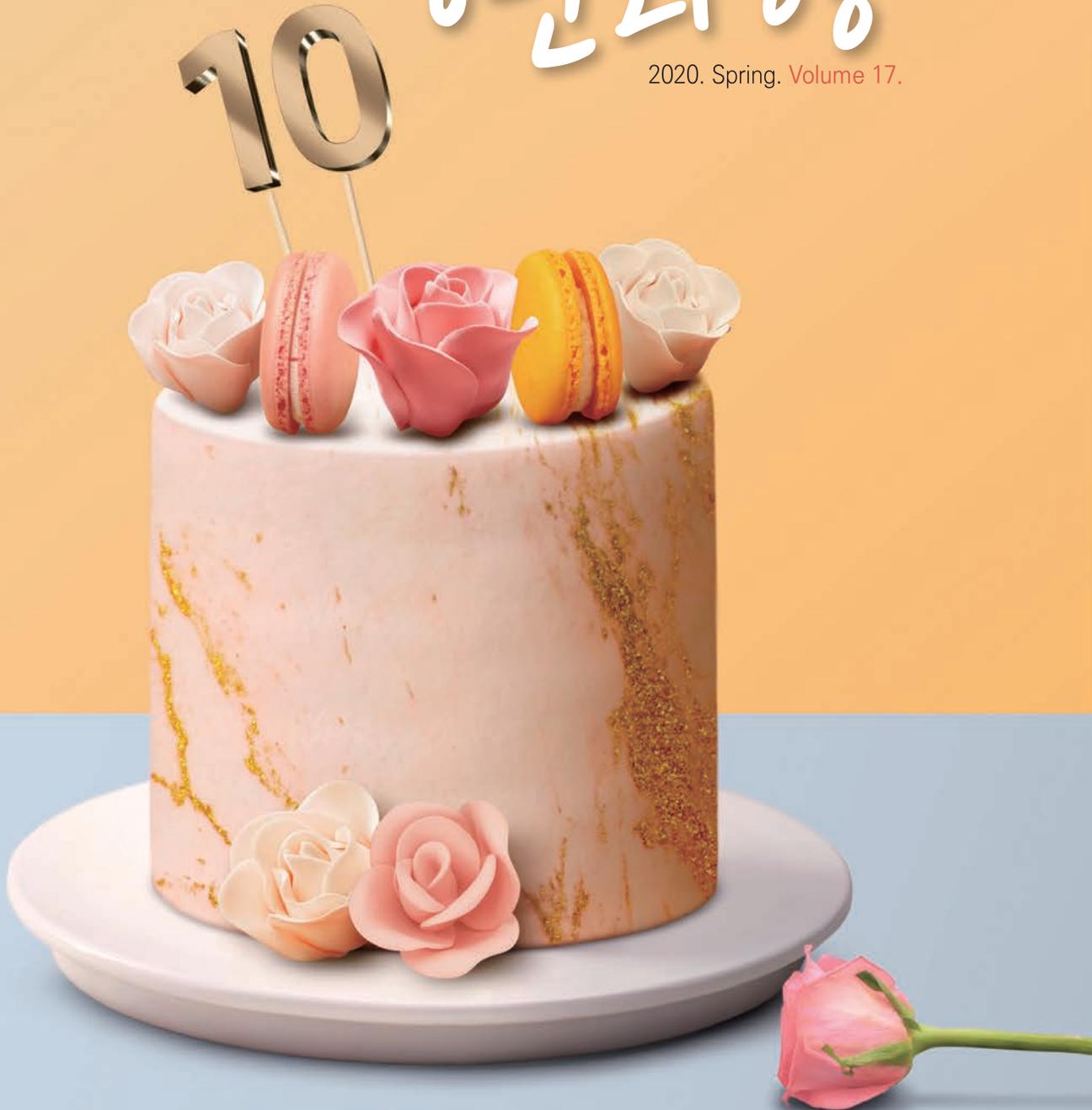
나의 미래를 보고
어르신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

연화향

2020. Spring. Volume 17.



CONTENTS



- 03_ Hello_천태중 천태중복지재단 창립 20주년 소개
- 04_ 성문소식通 2019 하반기 주요소식
- 06_ Zoom In. 2019 연말행사 '우리는 한가족'
- 08_ 10주년특별기획 인과연 part.1 '십년지기(十年知己) 나의 벗' ||이임자 어르신
- 10_ 10주년특별기획 인과연 part.2 '함께 걸어온 10년' ||소리장구 재능기부 봉사단
- 12_ 10주년특별기획 인과연 part.3 '성문과 10년 나란히 나란히' ||황금자 요양보호사
- 14_ 10주년특별기획 인과연 part.4 '앞으로 맞이할 10년. 함께 걸어요' ||신규직원소개
- 16_ 건강레시피 감염관리와 예방
- 18_ 2019. 결산서
- 19_ 2020. 상반기 주요일정
- 20_ 성문가이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은 1999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나눔과 봉사를 통해 실현하고 나아가 모든 인류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후원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복지공동체를 위한 변화와 성장을 함께한 천태종복지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9년 12월 4일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전국 31개의 산하기관이 모여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용시설



-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 금강직업재활시설
-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 단양노인복지관
- 단양장애인복지관
-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 서구노인복지관
- 압구정노인복지센터
- 영주시노인복지관
- 우면종합사회복지관
- 청솔종합사회복지관
- 춘천동부노인복지관
- 춘천시니어클럽
-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 네이처힐3단지어린이집
- 새싹어린이집
- 서초어린이집
- 수청어린이집
- 숲속어린이집
- 아이뜰어린이집
- 어울림어린이집
- 우면어린이집
- 천호어린이집
- 청솔어린이집
- 파인8어린이집

생활시설



- 단양노인보금자리
- 단양노인전문요양원
- 송파노인전문요양원
- 세곡동데이케어센터
- 원주성문노인전문요양원
- 진해금강노인전문요양원
- 학수정데이케어센터

하반기 주요소식



mbc1318캠프

8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BC가 주최하는 <MBC1318 사랑의 열매> 캠프가 성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고기도 굽고 요리를 만들며 재미있는 봉사활동이었지요.



추석행사

9월 11일,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한가위배 놀이한마당>이 진행됐어요. 1부로 송편빚기와 옷놀이, 2부로 놀이한마당을 진행하며 명절 분위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10월 2일, 어르신들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천태은빛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연도 관람하고 특별히 보호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씨름대회>를 진행하며 상품도 받고 서로 재밌는 추억을 마음속에 저장! 했지요.



태풍 '미탁' 대인지원

10월 8일, 천태중복지재단에서 각 산하기관이 모여 태풍 미탁으로 침수피해가 심각한 삼척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동그라미 티움버스

10월 30일,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어르신들과 함께 여주 황학산 수목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불고기 정식도 먹고~ 수목원에서 풍경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웠어요~



임직원 해외연수

10월~11월, 3차례에 걸쳐 요양원 모든 직원들이 즐겁게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도 좋고~ 모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후원의 밤

11월 27일, 어르신들을 위해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서포터즈들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한 영상을 시청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규입사자교육

12월 13일~14일 1박 2일로 신규입사자 교육이 구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각 산하 기관의 신규입사자들과 함께하며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통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마음가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전담실 #반야실 #이모저모



음악활동

악기를 흔들며 어르신들과 신명하는 노래 한바탕~! 매주 이렇게 가사를 기억하고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며 흥겨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모의시장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반야실에서 월 1회 시장이 열립니다. 직접 원하는 반찬, 간식을 소지하고 있는 쿠폰으로 계산해서 음식을 구입하세요~



어화동동

성무유치원 원아들과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주제로 어르신들과 함께 합니다. 간식을 직접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미술활동

내가 바로 예술가! 매주 어르신들과 함께 주제는 다르지만 미술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손과 눈을 자극하는 시간을 가져드립니다. 집중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어때요~?



텃밭활동 '배추심기'

야외활동은 어르신들께 인기만점!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심고파 하셨던 배추를 심었어요. 수확해서 걸절이로 먹고 배추전도 먹고~배추된장무침도 해 먹었습니다.



인지훈련

건보공단의 인지훈련도구 자료집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공부시간'으로 인지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등생!



추석준비 '차례상 차리기'

어르신들과 차례상을 꾸며보았어요. 지역별로 상에 올리는 차례 음식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차례 음식과 지역 대표 음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인지자극 '고춧잎 다듬기'

어르신들과 용기종기 둘러앉아 고춧잎 다듬기가 한창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성문 텃밭에 직접 키운 고춧잎을 수확하니, 기쁨이 두 배! 맛도 두 배겠지요? 양이 참 많다 많아~^^



요리활동 '어묵탕'

오늘은 내가 요리사! 어르신들과 집에서 만들어 먹었던 기억을 나누며 직접 꼬치에 어묵을 꽂아보았습니다. 눈 깜빡할 새에 완성!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2019 연말행사 "우리는 한가족"

12월 19일 (목), 성문요양원에서는 지하 1층 면회실과 2층 관음동으로 나누어 2019년을 마무리하는 <우리는 한가족>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 보호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한 활동 영상을 보여드리고 행사의 의미에 맞게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족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호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어르신들께서 활동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등의 영상 속 사진과 직접 어르신들과 인터뷰한 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보호자들을 보며 괜스레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에 보호자들께서 우리 요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하시며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부 요리활동인 <요리cook! 조리cook!> 시간으로 이번 주제는 수육&비빔국수를 만들어 먹으며 어르신들과 보호자, 직원들이 함께 만든 비빔국수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수육이 찰떡궁합을 이루며 모두 하나 되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요리활동을 하면서 한층 떠들썩한 분위기에 진정으로 2019년 연말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행사명에 부합하는 하루였다.

매년 진행되는 행사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보호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올해도 우리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함께하며 좋은 추억이 쌓인 것 같아 뿌듯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였다.



2019 보호자 간담회

2018. 간담회 이행사항

보호자 안건	이행 사항
보행운동 서비스 확대	주 2~5회 보행운동 '가치워크'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음.
신발장 개선 희망	출입문(입구) 좌측-보호자 신발장 별도 공간 마련함.
先조치, 後보고 간호서비스 지향	병원진료의 경우, <전담간호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진행함에 따라 先조치 後보고 체제가 적절히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음.

2019. 간담회 보호자 안건

보호자 안건	반영 계획
성문 가족 단체방 열람	현재 성문서포터즈 밴드에 보호자들을 초대하여 다양한 행사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구강관리에 따른 어린이 치약 사용	구강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위생관리에 신경 쓰도록 함.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른 종류 확인	월 1회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함.



이임자 어르신의 나의 십년지기(十年知己) **벗**

Q 입소할 당시 기억 나누게 있으신가요?

2010년에 성문요양원 건물을 새로 지어 초창기에 입소를 하게 되었지. 벌써 10년이나 흘렀네. 처음에는 요양원에 살림도 하나도 없고 병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 그대로 건물만 덩그러니 있었지.

나까지 입소한 어르신들이 여섯명이었는데, 어르신들이 별로 없으니 직원도 많지 않았고 헿했지 뭐. 그러다가 어르신들 한분한분 들어올 때 마다 병상도 하나씩 들어오더라고. 점차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 TV도 들어오고, 서랍장도 놔주고 살림이 하나둘씩 채워져서 지금은 없는데 없이 다 갖춰지게 된거지.

Q 입소해 계시는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성문요양원 입소 당시에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화병이 나서 마음이 매우 힘들었어. 어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면 땀으로 옷이 흠뻑 젖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잘하다가도 욕하는 기분에 일부러 싸움도 걸고 그랬어. 그때마다 지금의 국장이 와서, 사람들이 없는 데로 나를 조용히 데리고 나갔어.

지금이야 사무국장이 되었지만, 10년 전에는 나랑 같이 요양원 들어온 동기나 마찬가지로. 뻔치는 화 기운에 애먼 국장한테까지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대했다고. 퍼런 젊은이가 노인네가 부리는 투정에 위로하고 달래느라 진이 꽤 빠졌을거야.

그런데 그 난리를 피는데도 묵묵하고 한결같이 내 걸을 지켜주더라고. 불같은 내 성격이었으면 진작 나가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야. 조용



히 보듬어준 국장 덕분에 화병도 다 고치고 지금은 너무나 좋아졌어. 요즘도 요양원에서 국장을 만나면 서로 손잡고 빙그레 웃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Q 성문요양원에 계시면서 특별히 즐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먹기에 달린거지.
 아무리 곱고 빛깔 좋은 비단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여기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좋은거거든.
 어떤 것도 100% 만족하고 살 수는 없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 같아. 특별히 즐거웠던 일을 꼽자면,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가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절에 가서 기도하고 공양하는 일이 정말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

자마자 기도를 드리는데,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게 참 좋아.

Q 성문요양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랄게 뭐가 있어.
 여기서 10년을 지내왔지만 내 집처럼 편안하고 마음 불편한 것 없이 지내왔다고.
 물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고 이제는 성문요양원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로.
 그거면 됐지 바랄게 뭐있어? 선생님들과도 마음에 잘 맞아서 얼굴 붉히는 거 없이 편하게 지내고, 밥도 입맛에 맞아.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처음 입소할 때에는 칸칸이 방만 있었지 살림은 없었는데 지금 살펴보면 없는게 없이 다 있잖아. 그런거 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이제는 성문이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는게 내 바램이지.



'함께 걸어온 10년' 소리장구 봉사단



1. '소리장구' 봉사단체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장구 봉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금자입니다. 18년 전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과 뜻을 합쳐 '소리장구' 봉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원주에서 여러 복지관과 요양시설에서 장구 공연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민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체력적인 문제와 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더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쉽네요.

2. 성문요양원에서 봉사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성문요양원 개원 당시에 지인분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 현재까지 봉사활동의 연을 이어가고 있네요. 처음 봉사활동을 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동안 활동을 하였다니 감회가 새로워요.

3. 성문요양원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성문요양원은 처음 봤을 때 그대로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대부분 그렇듯이 모든 시설이 처음에는 다 깨끗하고 새것이라서 좋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처음의 모습은 사라지기도 하는데 성문요양원은 처음 봤을 때처럼 깨끗하고 늘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항상 방문할 때마다 직원분들이 한결같이 너무 친절하시고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좋은 기분으로 공연을 시작해요. 또 공연이 끝나면 소품도 같이 옮겨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 좋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맺어 온게 아닐까요?





4. 봉사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음~ 성문과 인연이 오래되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나는게 참 많아요. 맨 처음 성문으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 봉사단 별명을 지어주신게 생각이 나네요. 초창기 성문요양원 봉사활동 오면 저희 봉사단원들도 성문요양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고 긴장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때 진행을 보셨던 분이 지금의 국장님이예요. 그 당시에는 국장님도 새내기 복지사였던 것 같은데, 우리를 '소녀시대'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소녀시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덕분에 어르신들께서도 호응도 잘해주시고... 가끔씩 옛날을 돌이켜 보면 그때가 그리기도 해요.

또, 초창기 입소하셨던 어르신 한 분께서 지금도 정정하신 모습으로 입소해 계시는데 우리를 볼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칭찬해주시고, 노래도 참 잘 부르셨던걸로 기억해요.

공연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표정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를 볼 때마다 처음 보듯이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고 고맙지요.

5.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돈도 안 되는데, 차비까지 써가며 뭐하러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봉사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도 못하고 뭘 바라면 더더욱 못하지요.

전문공연단이 아니라서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러 실수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고 즐거워 하시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소리장구' 봉사단의 하나의 공연이 어르신께 따뜻하게 마음속에 남기를 바라봅니다.

황금자 요양보호사

'성문과 10년 나란히 나란히'

내가 성문에 처음 입사한 것은 2010년 8월이었다. 입사하던 그해 여름, 어찌나 무더웠던지 가만있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렀던 것이다. 하지만 개원 4개월 차, 성문 직원들의 눈빛에는 무더위가 무색할 만큼의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작은 변화나 발전 하나에도 모두 내 것처럼 기뻐 물기까지 베풀었던 기억도 있다. 시작하는 사람들의 '선택', 그대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구리가 절로 올라가는 것 같다.



내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도전하게 된 것은 2008년이였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친정엄마'가 계기가 되었다.

2007년 친정엄마가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판막수술을 받으셨고, 형제들 중 시간적 여유가 된 내가 한 달 동안 엄마의 간병을 맡게 되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간병에 미숙함 투성이었지만, 모르는 것은 간호사들에게 물어가며 지극정성을 다했다. 엄마도 처음에는 미숙한 나의 손길을 불안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차 나의 손길도 능숙해지고, 서로에게 적응을 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장에서 샤워를 시켜드리고 있던 내게 엄마가 말씀하셨다.

“힘들어서 어떡하니? 너한테 짐이 됐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눈물을 행여 엄마가 볼 새라 눈을 질끈 감아 머금고, “아유,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것쯤이야 해도 되지”라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답을 했다.

‘부모란 평생을 주기만 하고. 다 큰 자식한테 좀 기대면 어때서,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미안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어찌나 마음이 아렸던지 모른다.

내 직업의 가치를 깨닫고, '사람'과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엄마와 함께 했던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평생 내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엄마가 나이 들어 쇠약해졌다는 것에 마음이 몹시 아팠고, 이제 내가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드려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한 달 동안의 간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기도 했지만, 아픈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였다.

그런데 자신감 넘치게 첫발을 내딛었던 그 때와 달리, 10년을 넘긴 요즘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든다. '요양보호사'라는 나의 직업!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가족들조차 이런저런 사정으로 수발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식사며, 씻는 것이며, 소대변 관리 등에 내 손길이 닿으면 어르신들께서 "고마워요", "고생 많아요"라는 말씀을 해주신다.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감사'의 눈빛을 보낼 때는 또 어찌나 몽클한지 모른다.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늙으신 나의 부모님을 떠올린다. 또, '이 어르신들 중 다시 일어나 요양원을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이 때때로 들기도 한다. '생의 마감은 결국은 집이 아닌 곳에서 하시겠지', '삶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 여기이고, 그 마지막에 나라는 한 사람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의 무게가 제법 묵직하게 다가온다. 한편으로는, 이른 나이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택해 사람이 삶을 마치는 생애 과정을 가까이서 보고,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다.

'성문'에서 요양보호사로 함께 한 시간 1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동안 스스로 많이 성장했음을 느낀다. '요양보호사'로서 내 직업의 가치를 깨닫고, '사람'과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된 것은 '성문'이라는 터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나아갈 '성문'을 믿으며, '성문'과 함께 더 성장할 '나' 자신도 믿는다.

'앞으로 맞이할 10년 함께 걸어요.'



성문의 어르신들 건강을 책임지는
정희정 간호팀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팀의 총괄을 맡고 있는 팀장 정희정입니다. 성문요양원에 입사한지가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일년이 넘었네요.

Q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하다 보니, 꼼꼼한 관찰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고령의 어르신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매일매일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또한, 어르신들의 특이소견 발견 시 즉각적인 보고와 문제해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 팀과의 팀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Q 업무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어르신 병원 진료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일단 보호자분께 전화연락을 하여 현재 어르신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들게 됩니다. 더욱이 입사 초창기에는 보호자분과 관계형성이 되지 않아 더 힘들게 느꼈던 것 같아요. 또한, 야간에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퇴근 후에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야 하는 점이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Q 1년간 지내온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입사한 지 한 두달 동안은 어르신들을 익히는 데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구요, 이후에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께서 믿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은 '역시 성문요양원에 입사하기를 잘했구나'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직원과 직원간의 소통과 화합이 잘되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과 다양한 교육 참여의 기회가 많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과 이성적인 판단력을 고루 갖춘 간호사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실 것이며, 간호 관련 전문지식을 꾸준히 탐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10년 함께 걸어요.'



성문의 떠오르는 셋별 총무팀 막내
김현정 사무원

Q 자기소개와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총무과에서 청구를 맡고 있는 사무원 김현정입니다. 입사한지는 2019년 3월에 입사하였구요, 이제 곧 1년차가 되어가네요.

Q 성문요양원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디자이너 전공이라서 성문을 입사하기 전까지는 디자인회사에서 일을 하였는데요. 어떤 업무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지만, 회계 역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인 업무를 하면서 가끔씩 회계업무에도 매력을 느끼고 배워보고 싶었어요. 일년에 한가지씩 자기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곤 하였는데, 용기를 내어 회계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죠. 그래서 디자인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회계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에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성문요양원에 회계파트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업무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성문요양원에 입사하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그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입사 초기 몇 개월 동안은 조직에 적응하는 것과 업무 익히는 것이 가장 힘들었구요, 회계는 처음이다보니 실수가 잦아서 업무적인 부분이 힘들었지만, 팀에서 잘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잘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Q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요양원 입사를 한 뒤 어르신들 한 분씩 찾아뵈어 인사를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도 찾아 뵈고 있는데요. 어르신 한 분께서 저를 잊으시고, "요양원에 새로 왔으면 어르신한테 인사를 해야지!" 하시며 꾸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됐었는데, 계속 지내다 보니 어르신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 뵈기로 했지요.

덕분에 지금은 어르신 생활동에 올라가면 손녀딸처럼 먼저 손을 잡아주시거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나요?

입사 초창기에는 업무 실수가 잦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실수한 부분을 체크하고 정리하는 과정과 주기적으로 회계 교육을 참석하게 되어 조금씩 업무에 자신감이 생기고 실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창하거나 큰 포부는 아니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서 업무의 완벽도를 높이는 것이 저의 계획이자 포부입니다.

감염관리와 예방



1. 감염

감염이란, 병원성 미생물이 사람이나 동물, 식물의 조직, 체액, 표면에 정착하여 증식하는 것으로 감염경로, 전염성 여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더군다나 현재는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에볼라, 메르스, 사스, 한때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는 말라리아, 뎅기열 등 재출현 감염병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병원을 중심으로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 세균이 확산되고 있으며, 2019~2020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환자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또다시 전 세계가 전염병 공포에 떨고 있다.

2. 감염의 종류 (전염성 / 비전염성)

- 1) 전염성은 질병의 경과 중, 잠복기나 회복기에 감염한 생체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과 함께 병원체가 나와서 접촉 또는 매개에 의해 다른 개체를 감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천연두·디프테리아·성홍열(猩紅熱)·페스트·콜레라·적리(赤痢) 등이 이에 속한다.
- 2) 비전염성은 병원체가 감염한 생체에서 배설되지 않거나 배설되더라도 다른 개체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는 파상풍·말라리아·발진티푸스·산욕열 등이 있다.

3. 전파 경로

접촉전파로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이 있고, 비말전파, 공기매개 전파, 무생물/생물 매개체 전파 등의 전파 경로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는 동일한 미생물이 한가지 이상의 경로로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비말전파

일상적인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 발생 된다. 약 1M 이내에서 전파 가능하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호흡기 바이러스감염,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있다.

2) 공기매개 전파

공기 중에 떠다니며 기류를 통해 먼 거리까지 전파한다. 사람이 공기 중의 입자를 흡입해서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환기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파종성 대상포진이 있다.

3) 접촉전파

가장 중요하고 빈번한 전파로 직접전파는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접촉, 간접접촉은 오염된 물체나 오염된 환경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옴 등이 있다.

4.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지침

1) 결핵&수두 전파 예방

결핵은 2주 이상 기침이 있는 경우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며 가정에서 결핵환자가 있는 경우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수두는 공기전파와 피부에 의한 접촉전파가 가능하며 예방을 위해 손위생과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피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단체 활동을 금지한다.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그 외 혈액감염에 따른 감염, 오염된 음식, 물을 통한 전파 예방과,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 등이 있다.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2019.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원)

2019. 01. 01. ~ 12. 31.

세입			세출			
예산과목		정산액	예산과목		정산액	
세입총계		3,051,198,669	세출총계		2,799,277,743	
보조금	시군구보조금	39,945,230	사무비	인건비	1,999,515,949	
	시도보조금	65,265,000		업무추진비	7,748,930	
	소계	105,210,230		운영비	194,118,716	
후원금	비지정후원금	58,504,030		소계	2,201,383,595	
	지정후원금	-		재산조성비	시설비	189,938,480
	소계	58,504,030			소계	189,938,480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	사업비	운영비	365,804,438	
	소계	-		사업비	38,578,250	
이월금	이월금	122,090,521		소계	404,382,688	
	이월식재료비	6,558,264	전출금	전출금	-	
	이월후원금	8,859,737		소계	-	
	이월보조금	1,340	잡지출	잡지출	3,571,710	
	소계	137,509,862		소계	3,571,710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	예비비	예비비	-	
	예금이자 수입	575,127		반환금	1,270	
	직원식재료	45,390,500		소계	1,270	
	기타잡수입	79,275,800	적립금	운영충당적립금	-	
	소계	125,241,427		소계	-	
입소자 부담금수입	본인부담금	308,644,260	준비금	환경개선준비금	-	
	식재료비	203,750,700		소계	-	
	소계	512,374,960				
요양급여 수입	장기요양급여	2,112,338,160				
	소계	2,112,338,160				

2019. 후원금 결산내역 (단위:원)

2019. 01. 01. ~ 12. 31.

구분	수입	지출내용		잔액
지정후원금	-	지정후원금	-	1,711,517
비지정후원금	58,504,030	비지정후원금	56,792,513	
전년도이월후원금	8,859,737	전년도이월후원금	8,859,737	
법인전입금(후원금)	-	법인전입금(후원금)	-	
합계	67,363,767	합계	65,652,250	

2020. 상반기 주요일정

월	어르신 및 보호자 참여 일정	직원 역량강화 및 주요 일정
1월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월	· 설날 행사 '행복잔치' · 정월대보름 행사 '달맞이 잔치'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1차)
3월	· 구충제 복용 · 1분기 운영위원회 · 1분기 보호자 및 수급자 정기상담	· 상반기 소방안전교육
4월		· 부처님 오신 날 맞이 후원홍보활동 ·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5월	· 식목행사 · 어버이날 행사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2차)
6월	· 상반기 재난대응훈련 · 기초건강검진(혈액검사) · 2분기 운영위원회 · 2분기 보호자 및 수급자 정기상담	

성문 서포터즈

후원 안내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후원품은 모두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 예금주 : 성문노인전문요양원

기업은행 128-082332-01-022

기업은행 128-082332-01-143

※ 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자원 봉사 안내

성문에서 어르신들의 '행복 동반자'를 찾습니다.

넘치는 열정과 재능, 훈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주실 분들은 바로 전화주세요 .

활동내용 | 케어봉사(나들이, 말벗, 식사보조, 생활동 청소 등)

전문봉사(의료봉사, 레크리에이션, 심리상담, 미술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보조, 행정업무 지원 등

신청방법 | 전화 (033)745-9179 홈페이지 www.sungmuncare.or.kr

성문요양원 2010년 복지사업팀 첫 프로그램

'행복다향찻집'



나의 미래를 보고
어르신들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성문노인전문요양원